

설국이란?

도카마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이야기할 때 ‘설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단어는 ‘눈의 나라’로 번역되어 눈이 많은 지역을 가리키지만, 더 복잡하고 시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설국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부터 혼슈 북부 도호쿠 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도호쿠에서 바다를 따라 시마네현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도카마치시는 지중해와 같은 온난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설국’ 중 한 곳입니다. 도카마치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는 니가타현 연안과 혼슈 중앙을 가로지르는 미쿠니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바다를 건너 쓰시마 해류를 따라 북상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충돌합니다. 공기는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운 수증기로 가득 차게 되고, 마침내 니가타의 내륙 산지에 부딪히면서 적란운이 형성됩니다. 이 적란운이 상승기류에 밀려 올라가면서 내부의 무거운 수분이 눈으로 바뀌어 내립니다.

설국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많은 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단가에서 현대 J-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작품에 등장하는데,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의 근대소설 『설국』만큼 유명한 예는 없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도쿄의 문필가와 설국의 온천마을에서 만난 게이샤와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차가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그곳은 설국이었다. 밤하늘 아래 하얀 대지가 펼쳐져 있었다.”

문학과 대중문화에서 ‘설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설국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북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설국이라고 하면 눈이 쌓인 광활한 대지, 잎이 떨어져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는 쓸쓸한 풍경, 하얗게 얼어붙은 바위산 등을 연상시킵니다. 이 단어는 많은 눈이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경외로운 자연에 대한 감탄과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삶을 개척한 사람들의 인내와 불굴의 정신에 대한 경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카마치에는 이러한 ‘설국’의 시적인 정신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